“비구니 승가 참종권 확대 기대”

▶1면에서 이어짐

비구니 최초 법계위원 의미

2013년 비구니 호계위원 ‘좌절’

비구니 스님들 2014년 제안서 공개

7월 22일 위촉식은 12년만의 결과

정운 스님 “시대 흐름 따른 공감”

조계종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은 2013년부터 시작된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 노력에 대한 제도적 결실이다. 이번 법계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불교 승가 공동체의 진정한 평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해야 하는데 현재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할 경우 해당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명사 특별 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이 참여하도록 ‘법계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비구니 법계 특별 전형이 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 심사해야 한다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어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본각·계호·광용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법계법’ 제5조 2항은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 확대는 2013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해 중앙종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바꾸는 종헌 개정안이 처음 상정됐으나 부결되자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2014년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구니 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공개하며 비구니계의 염원을 세상에 알렸다.

같은 해 6월 열린 중앙종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의 법규위원과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7월 원로회의에서 절차상 문제 제기로 다시 부결됐다. 이후 8월 제199회 임시회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 역시 가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법계위원 위촉식은 ‘법계법’ 개정 요구 12년 만의 성과다. 전체 승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향후 그에 합당한 참종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운 스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감을 얻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며 “종헌종법이 시대에 맞게 계승돼야 하고, 비구 스님뿐 아니라 비구니 스님도 함께 해야만 종단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둬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청춘남녀, 연꽃 명소서 커플 매칭

연꽃 명소 남양주 봉선사에서 청춘들은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7월 19~20일 봉선사에서 특별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봉선사’를 개최했다. 청춘남녀들은 로테이션 차담,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MC 심목민의 레크리에이션, 야간 자유데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는 절로, 봉선사’에는 남자 250명, 여자 298명 등 548명이 지원했으며 남녀 각 12명을 선발해 총 4커플이 매칭됐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수락노인복지관·굴암사 녹색도량 협약

7월 16~17일, 협약식 개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실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장지연), 안성 굴암사(주지 해성 스님)와 ‘녹색도량 협약식’을 진행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7월 16일 수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은 “연기설이 말하듯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돼 있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도량 협약을 통해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불교환경연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제로 환경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보기 계획, 남김 없는 식사, 잔반 줄이기, 적정량 조리법,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실질적인 방법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은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의 잔반 없는날이 진행된 날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감대를 넓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7월 17일에는 안성 굴암사가 협약식을 통해 68번째 녹색도량이 됐다.

굴암사 주지 해성 스님은 “굴암사는 오래전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수행처로서의 전통을 지켜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비닐·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며 신도들과 함께 환경 보살의 삶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와 안성 굴암사의 녹색사찰 협약식 모습.

임은호 기자

교불련 ‘대학생전법교재’ 편찬 추진

7월 17일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진우 스님 “시대 맞는 전법” 당부

8월 11일 대불련과 워크숍 논의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가 대학생 전법을 위한 교재 편찬에 나선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7월 17일 서울 조계사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대학생 전법 교재’ 편찬 방향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이날 이 회장은 “〈인문학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불교 교리 내용이 어느 정도 실려 있어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초기불교이론을 비롯해 〈금강경〉, 〈수심결〉 등을 담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미국 동부지역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상 및 마음챙김 호흡(mindful breathing)’ 프로그램에 한국의 죽비를 지원해 선명상 확산의 기폭제로 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AI시대를 맞은 현대 사회에서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전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기설법을 하신 부처님의 지혜와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대학생전법교재 편찬위원회’는 8월 11일 오후 4시 동국대 영상문화센터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집행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전법교재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집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제1차 편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광복 80주년…국토 수호 염원

7월 21~23일, 22회 회당문화축제

2000여 명 참석…콘서트·순례 등



광복 80주년을 맞아 울릉도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에서 국토 수호와 평화를 염원하는 ‘독도아리랑’이 울려 퍼졌다.〈사진〉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21~23일 울릉도 일원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23일 빌드업, 태평, 희망과 도약, 독도아리랑, 어울림 등 5가지 주제로 펼쳐졌다.

청년 예술가들은 음악과 댄스 공연을 선보였고 울릉도 꿈나무어린이집 원아들의 귀여운 율동과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태권도부의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철호 테너와 가수 안치환 씨의 열창도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광복 80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진각 80년을 기대하며 마련된 80인의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도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펼쳐졌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올해 회당문화축제는 광복 80주년에 맞춘 특별기획으로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더한 ‘독도아리랑 찬가’”라며 “앞으로 더욱 새롭고 알찬 회당문화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인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2회째 회당문화축제를 마련해 주시는 진각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당문화축제 본행사에 앞서 순례문화 조성을 위해 처음 기획된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 도보순례가 진행됐다. 순례단 40여 명은 7월 23일 여래심인당을 출발해 총지심인당까지 8.1km를 3시간 동안 걸었다.

해단불사에서 능원 정사는 “창교 80주년을 맞아 순례가 종단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백두산, 고구려유적, 화엄사–수월정사 순례

9월12일~9월16일(5일간)

■ 일정: 인천–심양–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백두산 천지(북파)–연길–두만강(화엄사,수월정사)–인천

▶동참금 : 159만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9월13일~9월28일(16일간)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 일정: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동참금 : 570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일정: 인천–북경–대동–운강석굴,화엄사–현공사–오대산 5대 순례–북경–인천

▶동참금 : 159만원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23일~30일(6박8일)

■ 일정: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42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 - 법문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 - 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동참금 : 349만원